

# 12·29 제주항공 참사, 40일간의 진실 추적 '대장정'

국조특위, 로컬라이저 둔덕·은폐 의혹 등 내년 1월 30일까지 조사  
조류 충돌·기체 결함 등 5대 과제 집중…청문회·현장조사 강행군

'12·29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조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4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사고 경위 파악을 넘어 참사를 유발한 구조적 원인과 국가 기관의 은폐 의혹까지 파헤치는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조특위가 확정한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 줄기로 나뉜다.

특위는 참사의 실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사고 당시 제기되었던 항공기의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가 적절했는지, 이 위험성이 실제 참사를 유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기체인 제주항공 7C2216편의 엔진 등 기체 결함 가능성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무안국제공항의 시설 문제다.

항공기 폭발 화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 관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참사 발생 이후 1년 가까이 정확한 원인을 밝혀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기관 등에 의한 조직적인 축소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명백히 가려낼 방침이다.

특위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를 정취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검증을 실시한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시행하며,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부와 관련된 기관 보고를 정취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검증을 실시한다.

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본격적인 활동 준비를 마친다.

이어 참사 1주기인 오는 29일에는 위원 전원이 사고 현장인 무안공항을 찾아 주모식에 참석한다. 오전 10시 무안공항 2층에서 열리는 주모식은 목념과 현화, 주모사 낭독 등으로 진행되며, 특위 위원들은 희생자 179명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진실 규명의 시간'이 이어진다. 특위는 1월 1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으며 정부의 대응 적절성을 따진다.

이어 20일에는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유가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때 채택된 증인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치열한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월 27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1년이 넘도록 규명되지 않은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실현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실현성 있는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노인회 청와대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한중 정상회담 추진…조현 "동북아 평화 정착 논의"

내년 초 개최 중국과 협의 중  
트럼프 중국 방문이 계기될 듯  
이 대통령 일본 방문도 추진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회담에서 동북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중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곧 날짜 등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양국이 어떻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웃 국가 간 잘 지내려면 남장도 깨끗하게 잘 쌓고, 잘 고치고, 잘 지켜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운주 1차관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한

중 외교 차관 전략대화를 가진 데 대해서는 "관련 협안을 짚었고, 통일부에서 제안했던 북한과의 협력사업에 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필요하면 직접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 전화 통화를 할 것이라며, 일본과도 연초 대통령 방일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미 대화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가오는 노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 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SS)와 중국 군축 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미국 측으로부터 비핵화를 분명히 목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며 "중국 역시 왕부장에게 직접 문의했는데, (비핵화)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와 관련해 "핵잠수함,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국방 예산 확대, 조선 등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문제는 외교부에서 전담 인력을 꾸리고 조직을 만들어서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고, 핵잠수함도 안보실 주도로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입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미국과 본격적 협상에 들어갈 것이고, 가급적 빨리 다 종결짓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보고에서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내년에는 미국이 주요 20개국(G20) 주최국이기 때문에 그 기회도 있고, 그에 앞서서도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정상회담이 마련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다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서는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보고한 것이고, 외교부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짚어볼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흔한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죄송스럽다"면서 "안보실에서 협의를 거쳐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교육발전특구×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고교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및 지역특화 인재를 육성합니다!



#### 광주보건대학

고교와 함께, 지역을 넘어 세계로 보건의 내일을 여는 글로컬 대학

#### 기독간호대학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실무능력이 우수한 글로컬 기독간호인재 양성 대학

#### 서영대학교

고교와 대학을 잇다, 서영대가 만드는 미래형 인재의 길

#### 조선간호대학

학교법인 조선대학

나의 간호 꿈, 고교에서 미리 준비하고 조선간호대학교에서 완성해요

####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미래를 여는 한 걸음! 대학과 함께하는 진로 탐색

#### 조선이공대학교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빛고을 미래인재 양성 통합 직업교육

#### 동강대학교

DONGGANG UNIVERSITY

특성화고 진로, 동강대에서 키워 지역 정주로 완성하다

#### 한국폴리텍대학

KWANTUNG POLYTECHNIC COLLEGE

미래 기술인재, 고교에서부터 키웁니다!